

사실보다 비싼 송정역 '바가지 주차요금'

1일 주차료 사설 5000원...송정역은 기본 1만원·할인시 7000원 요금 시비 빈번...셔틀열차 KTX 위주 운영에 SRT 이용객 불편도

#1. 최근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이용해 서울에 다녀온 김상현(4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주차장 이용요금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김씨는 송정역 바로 옆 주차장이 만차에서 1.1km 떨어진 제2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 사실상 바가지 주차요금을 낸 것이다.

김씨는 "제2주차장으로 오는 곳곳에 1일 5000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정작 주차장 직원은 '5000원은 사설주차장 요금이고 KTX 주차장은 기본 하루 1만원에 KTX이용 고객은 30% 할인한 7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사설 주차장보다 2배나 비싼 게 말이 되느냐. 송정역 이용객들이 코레일의 '봉'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명의로 지난 3년 동안 이용객이 4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SRT 개통 이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해 올해 연간 예상 이용객은 746만명으로, 하루 평균 2만43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송정역의 대표적 편의시설인 주차공간 확충은 제자리 걸음이고, 주차요금은 인근 사설주차장보다 두배나 비싼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은 코레일이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2곳을 운영중인데, 610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400원, 1일 주차시 1만원이다. 1일 주차의 경우 열차이용객에

한해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반면 광주송정역에서 1km 떨어진 한 사설주차장에서는 1일 주차요금으로 5000원을 받고 있으며, 무료픽업 셔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이용객들이 해당 사설 주차장이 도로 곳곳에 붙여놓은 '1일 주차 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보고, 송정역 제2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과 요금시비가 붙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코레일측의 설명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제2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1일 주차 5000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주차요금을 착각해 항의를 하는 이용객이 하루평균 1~2명씩 종종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은 하루 5000원인데, 송정역은 1만원이라는 안내 플래카드를 붙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코레일이 동·북구 주민 교통 편의 보장과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행중인 셔틀열차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1일 왕복 30회의 셔틀열차(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를 운영하고 있는데, KTX중심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 SRT이용객의 불편이 높다.

이는 KTX는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고, SRT는 'SR'이라는 또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등 운영 자체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TX 환승이용시엔 요금도 600원에 불과하지만, SRT고객은 2600원을 내야 탈수 있다.

한 고객은 "일반 이용객은 송정역 운영 구조 등에 관심 없다. 개인일정 등에 따라 KTX나 SRT를 이용할 뿐인데 SRT를 이용한다고 차별까지 받아야 되겠느냐"고 소연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9일 광주 송정역 인근 도로에 '1일 주차요금 5000원'이라고 적힌 한 사설주차장의 홍보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반면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주 송정역 주차장은 1일 이용요금으로 1만원(KTX 이용객 30% 할인)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장흥 세모녀 참사'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심대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장흥 세모녀' 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협주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일이 아닌 일로,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락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리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께 횡간에 여관에 불을 냈다. 화재로 방학을 맞아 장흥에서 서울 나들이에 나섰던 박모(여·34)씨와 박씨의 중학생(14), 초등학생(11) 두 딸 등 3명을 비롯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채용 비리 혐의' 광주·전남 적십자사 직원 등 3명 고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혈액원 직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원 간호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 혈액원 직원 A씨(2급)와 광주·전남지사 직원 B씨(5급), 간호사 C(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혈액원 간호직 공채 지원자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액원 팀장급인 A씨는 2016년 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업무를 하던 B씨에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다. B씨는 C씨가 적십자사와 인증 기관에서 장시간 봉사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봉사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광주·전남 혈액원 채용 전형에서 허위 봉사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열린 면접에서 후보자 8명 중 C씨와 동점자 1명 등 모두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씨가 면접점수를 높여 C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본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적발, C씨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고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여고생 성희롱·성추행 교사 16명 모두 직위해제

여고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 모 고교 교사 16명이 모두 직위해제 됐다.

이 학교 재단은 9일 이사회를 열고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16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 교사는 학교 자체 전수 조사와 교육청 전수 조사에서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재단 이사회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들과 이들 교사를 장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직위해제 된 이들 교사는 추후 처벌이 있을 때까지 교사 직위를 당분간 잃게 되고 급여도 일부만 받는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들 교사의 빈자리를 공립학교 파견 교사 복귀와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채용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BMW 두대 또 불...리콜 대상 아닌 차량 포함

빨간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

정부가 리콜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검토하는 있는 가운데 9일에도 BMW 차량 2대에서 불이 났다.

특히 이날 불이 난 BMW 차량 중 한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운행정지 결정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동승자와 운전자를 교대하려고 졸음 심터에 차를 세웠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불이 난 차량은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여 뒤인 오전 8시 50분께에는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모델로, 리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는 올 들어 주행 중이나 주차 직후 BMW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케이스로 각각 35, 36번째다. BMW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화재가 난 520d는 광주에 서만 2566대가 등록돼 있다.

한편 이날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1명은 경찰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에쿠스 승용차 불 2명 사상

국도에서 서행 중이던 에쿠스 승용차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새벽 1시 40분께 경북 상주시 남상주 IC 진입로 인근 25번 국도에서 에쿠스 승용차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탄 여성이 숨지고 남성 운전자는 크게 다쳐 대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는 "서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인지, 다른 원인인지 차량 감식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목격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경위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트서 여성 150여명 치마 속 몰카 은행보안요원 경찰서행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마트를 찾은 150여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30대 은행 보안요원이 경찰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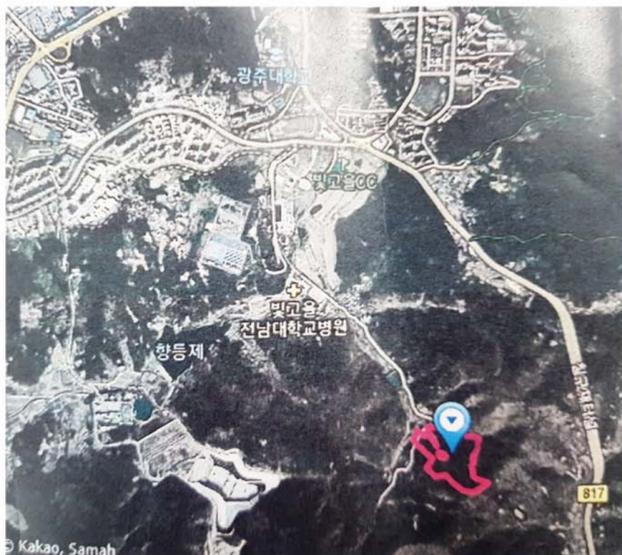
○...9일 서울영등포경찰에 따르면 이모(37)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등포구 일대 대형마트를 돌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속옷을 쇼핑카드

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153명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 4월 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마트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